안녕하세요?
스터디홀릭 열혈운영자 **강명규쌤**입니다.

전국 각지로 강연과 상담을 다니다 보면 초/중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초/중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요.

'여기에서 잘 하는 애들은 딴데 가서도 잘 해요. 중학교는 어차피 뺑뺑이라서 별 차이 없어요.'

고등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선발형 학교들도 있고, 일반고도 선지원 후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학교별로 학력차이가 난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선발형 학교에 보내거나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중학교는 속칭 뺑뺑이(추첨)로 학생을 배정하다 보니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십니다. 똑같은 동네에 사는 똑같은 초등학교 출신 아이들을 무작위로 배정한 것인데 설마 차이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 여유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면 공부에 질리게 되서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놀게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초중학교 때 공부 잘 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초등학교 성적은 엄마성적이고, 중학교 성적은 학원성적이며, 고등학교 성적이 진짜 실력**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부 잘 하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역시 초/중학교 때부터 잘 했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지 초/중학교 때는 못했다가 고등학교 때만 잘 하는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공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 때 기초를 제대로 닦아놓지 않으면 난이도가 높은 고등학교 공부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요. 부자가 공부를 잘 한다는 말이 아니라

공부는 한 번 잘 하면 계속 잘 하고, 한 번 못하면 계속 못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공부가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 중 하나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일이든 자기가 잘 해야 재미있는 법인데 잘 못하니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 하게 되고, 공부 때문에 혼나게 되니까 공부가 더 싫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 아이들의 학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1. **정말 여기에서 잘 하는 애들은 딴데 가서도 잘 할까요 ?**

   (지역별 학력격차 유무)

2. **중학교는 뺑뺑이 돌려서 배정하는 것이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까요?**

   (지역 내 학력격차 유무)

그래서 친절한 캉쌤이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지요. 이 시험은 학생들의 개인별 성적은 공개되지 않지만 학교별 성적은 공개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학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 학교의 학력을 확인함으로서 우리 아이의 전국단위 경쟁력을 유추해볼 수 있지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통해 우리 아이 학교가 얼마나 공부를 잘 하는지 학교의 경쟁력을 확인해볼 수 있고, 아이가 받아오는 학교성적을 통해 학교 내 경쟁력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이 두 가지 지표를 결합시키면 우리 아이의 전국단위 경쟁력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캉쌤이 경기도 광명시 중3 학생들이 2016년 6월에 응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전수조사해서 국/영/수 보통학력 이상 평균 백분률로 순위를 메겨봤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가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16학년도 광명시 중학교 순위 (학업성취도평가 국영수 평균 보통학력이상 비율 기준)

지역 순위	지역	학교명	과목	보통 학력 이상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응시 인원	응시율
1 / 11	광명시	철산중학교	평균	90.9%	8.3%	0.8%	509	99.8%
2 / 11	광명시	하안북중학교	평균	85.4%	12.3%	2.3%	364	100.0%
3 / 11	광명시	하안중학교	평균	83.3%	14.3%	2.4%	458	99.7%
4 / 11	광명시	가림중학교	평균	81.7%	15.5%	2.8%	282	99.3%
5 / 11	광명시	소하중학교	평균	79.0%	18.0%	2.9%	370	99.2%
6 / 11	광명시	광명북중학교	평균	77.7%	19.7%	2.6%	369	99.2%
7 / 11	광명시	충현중학교	평균	75.2%	20.0%	4.7%	183	100.0%
8 / 11	광명시	광남중학교	평균	75.0%	22.6%	2.4%	368	99.7%
9 / 11	광명시	안서중학교	평균	74.4%	23.2%	2.4%	167	100.0%
10 / 11	광명시	광명중학교	평균	71.3%	25.0%	3.8%	351	99.2%
11 / 11	광명시	광문중학교	평균	64.7%	26.3%	9.0%	263	99.1%

※ 과목별 순위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스터디홀릭의 전국 중학교 순위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강세를 보이는 학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과목별 순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영어학원에 가면 A 중학교가 공부를 잘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수학학원에 가면 B 중학교가 더 잘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목별로 공부를 잘 하는 학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중학교 순위 : http://www.studyholic.com/mid/index.asp?tn=RAN_002

위 표를 보시면 광명시 안에 있는 중학교들끼리도 학력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수준의 아이들도 어느 학교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학력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중학교 때 벌어진 학력격차가 대학진학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대학은 중3 때 결정된다**'라고요. 물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하거나, 머리가 더 좋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언론에 보면 중학교 때까지 게임폐인으로 살다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합격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언론에 장미빛 사례들이 종종 보도되니까 **'우리 아이도 마음잡고 공부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을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생각은 희망고문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거든요.

언론에 소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 소개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이지요. 드문 일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언론에 소개되는 것이잖아요.

명문대 합격수기를 읽어보거나 공부법 강사들의 강연을 들어보면 자신의 과거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을 뿐인데 상당히 불량한 학생이었거나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던 것처럼 포장해버리지요. 그래야 자신의 성공스토리를 더 극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요.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감명도 받고 동기부여도 되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재미를 배가하기 위해 부풀려진 이야기들이니까요. 심지어 합격수기 책들을 보면 본인이 직접 집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작가들이 대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작가들이 녹음기를 꺼내놓고 몇 시간 동안 인터뷰한 후 적당히 각색해서 쓰는 것이지요. 성공수기 책들을 보면 문장이 굉장히 매끄럽고, 이야기 전개도 자연스러워서 '이런 학생들은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글도 잘 쓰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문작가가 대필해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은이 자신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나?!'라며 의아해할 때가 있지요. -_-;;;

어쨌든 뒤늦게 마음잡고 공부해도 공부를 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상으로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면 다른 아이들도 공부하고, 다른 아이들도 우리 아이 못지 않게 머리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계속 못하는 식으로 공부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기 쉽지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1 신입생들을 받아 수업을 해보면 어느 학교 출신인지 감이 잡힐 때가 있다고요. 중학교 별로 학업분위기나 학력이 다르다 보니 수업을 해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간 학력격차는 어떨까요? 여기서 잘 하는 애들은 다른데서도 잘 할까요? 중학교 실력은 여기나 저기나 별 차이 없을거라고요? 그래서 친절한 캉쌤이 경기도 광명시 중학교들과 대한민국 최고 학군이라는 서울 강남구 중학교들의 학력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 2016 경기도 광명시 vs 서울 강남구 (학업성취도평가 국영수 평균 보통학력 이상 비율 기준)

지역 순위	지역	학교명	과목	보통 학력 이상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응시 인원	응시율
1 / 24	강남구	대왕중학교	평균	97.7%	2.2%	0.1%	298	99.0%
2 / 24	강남구	압구정중학교	평균	97.6%	2.2%	0.2%	152	99.3%
3 / 24	강남구	대청중학교	평균	97.2%	2.1%	0.7%	329	98.8%
4 / 24	강남구	대명중학교	평균	95.3%	4.1%	0.6%	343	99.4%
5 / 24	강남구	신사중학교	평균	94.8%	4.3%	0.9%	141	99.3%
6 / 24	강남구	단국대사대부속중학교	평균	94.6%	4.5%	0.9%	191	99.5%
7 / 24	강남구	역삼중학교	평균	94.4%	5.0%	0.6%	376	98.2%
8 / 24	강남구	도곡중학교	평균	94.3%	4.4%	1.4%	221	99.1%
9 / 24	강남구	구룡중학교	평균	94.2%	5.4%	0.4%	230	99.1%
10 / 24	강남구	진선여자중학교	평균	93.7%	5.3%	1.0%	334	99.4%
11 / 24	강남구	언주중학교	평균	92.1%	6.8%	1.1%	325	98.5%
12 / 24	강남구	숙명여자중학교	평균	91.9%	6.1%	2.0%	283	99.3%
1 / 11	광명시	철산중학교	평균	90.9%	8.3%	0.8%	509	99.8%
13 / 24	강남구	봉은중학교	평균	90.5%	8.1%	1.4%	144	98.6%
14 / 24	강남구	휘문중학교	평균	90.0%	5.3%	4.8%	265	98.1%
15 / 24	강남구	대치중학교	평균	88.5%	7.9%	3.6%	195	97.5%
16 / 24	강남구	은성중학교	평균	88.2%	10.4%	1.5%	138	99.3%
17 / 24	강남구	개원중학교	평균	87.0%	9.5%	3.5%	267	97.4%
18 / 24	강남구	개포중학교	평균	86.0%	12.2%	1.8%	109	98.2%
19 / 24	강남구	청담중학교	평균	85.6%	11.7%	2.7%	162	99.4%
2 / 11	광명시	하안북중학교	평균	85.4%	12.3%	2.3%	364	100.0%
20 / 24	강남구	세곡중학교	평균	84.6%	12.2%	3.2%	247	100.0%
21 / 24	강남구	중동중학교	평균	84.6%	12.0%	3.4%	275	100.0%
22 / 24	강남구	언북중학교	평균	83.3%	14.1%	2.5%	118	95.9%
3 / 11	광명시	하안중학교	평균	83.3%	14.3%	2.4%	458	99.7%
23 / 24	강남구	신구중학교	평균	82.7%	11.3%	6.0%	127	96.9%
4 / 11	광명시	가림중학교	평균	81.7%	15.5%	2.8%	282	99.3%
24 / 24	강남구	수서중학교	평균	80.0%	17.3%	2.7%	135	99.3%
5 / 11	광명시	소하중학교	평균	79.0%	18.0%	2.9%	370	99.2%
6 / 11	광명시	광명북중학교	평균	77.7%	19.7%	2.6%	369	99.2%
7 / 11	광명시	충현중학교	평균	75.2%	20.0%	4.7%	183	100.0%
8 / 11	광명시	광남중학교	평균	75.0%	22.6%	2.4%	368	99.7%
9 / 11	광명시	안서중학교	평균	74.4%	23.2%	2.4%	167	100.0%
10 / 11	광명시	광명중학교	평균	71.3%	25.0%	3.8%	351	99.2%
11 / 11	광명시	광문중학교	평균	64.7%	26.3%	9.0%	263	99.1%

위의 표를 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큰 차이에 충격받지는 않으셨나요? 광명시에서 공부를 가장 잘 하는 철산중학교조차도 간신히

중간에 위치할 뿐이고, 광명시에 있는 대부분의 중학교들은 강남구 최하위권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안타깝게도 **지역간 학력격차는 지역 내 학력격차보다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혹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친구들이 공부를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위의 표를 보시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역시 지역이 문제야, 이 동네는 애들 교육시킬 분위기가 아니라서 빨리 떠나야겠어.'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절한 캉쌤 역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런 정보를 접하면 하루빨리 강남으로 이사가고 싶어지거든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사를 못 갈 뿐이지요. 오죽하면 '강남입성'이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물'이 아니라 '개구리'라는 것**이지요. 개구리가 그나마 우물 안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지 만약 우물 밖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뱀에게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강남으로 이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된 말로 대치동 애들 바닥 깔아주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스개 소리로 **내신쿠션, 내신 카페트**라고 부르지요. '야! 네가 내 밑을 깔아줄 내신 카페트구나. 3년간 너를 즈려밟고 지나가줄 테니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말고 계속 내 밑을 깔아줘!'라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즉, 지역간 학력격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막연히 이사를 감행하는 것은 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남 등 교육특구라는 곳으로 이사가고 싶으시다면 '강남 가서 잘 해보자'가 아니라 '**강남에서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워보자**'가 되어야 하지요. 소중한 우리 아이를 내신 쿠션, 내신 카페트로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내신 쿠션이나 내신 카페트가 되면 성적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까지 짓밟히거든요.

그런데 **강남으로 이사가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춘다면 굳이 강남으로 이사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요즘 입시는 고입이든 대입이든 내신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내신관리를 잘

하는 것이 입시에 더 유리하거든요. **입시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우물 안 용 전략**이지요. 나도 용이기 때문에 다른 용과 싸워도 두렵지 않지만 용끼리 싸워봤자 상처 뿐인 영광일 뿐이니 굳이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좋지요. 내노라 하는 특목고에 합격할 수도 있고, 강남에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굳이 우리 지역에 남아 전교권 내신을 싹쓸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물 안 용 전략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내신관리를 수월하게 한 후 서울대 등 명문대에 지역균형선발전형같은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다룰 능력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학교의 학업경쟁력과 우리 아이의 학교 내 경쟁력을 분석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전국단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아는 것 못지 않게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탓하기 전에 내 아이의 실력과 나의 교육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광명이라는 단점이 아니라 광명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광명에서 광명처럼 공부하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것이지, 광명에서 강남처럼 공부하면 강남 아이들보다 더 훌륭한 실적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광명은 강남보다 내신관리가 쉽다는 절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어디서든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의 마음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광명 아이들이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박차고 올라 저 푸른 창공에서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상으로 스터디홀릭 운영자 강명규쌤이었습니다. 유후~~~!!! ^O^/

추신. 2017년부터 정부정책에 의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일반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2016년까

지는 전국의 거의 모든 중학교가 응시했지만 2017년부터는 일부 표본학교들만 응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지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전격 중단된 것인데 그 이유는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감추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당장은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게 되지만 학력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되어 그 차이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강남 아이들은 이렇든 저렇든 계속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우리 광명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 한다고 착각하며 시간을 허비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T_T

※ 전국 초/중/고등학교들의 **상급학교 진학실적 및 재학생들이 작성한 학교리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초등학교 정보 : http://www.studyholic.com/ele/School_TotalList_ele.asp
- 전국 중학교 정보 : http://www.studyholic.com/mid/School_TotalList_mid.asp
- 전국 고등학교 정보 : http://www.studyholic.com/high/School_TotalList_high.asp

※ 이 자료는 교육정보 공유목적으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카페나 블로그, SNS 등에서 자유롭게 공유하시거나 학원에서 배포 또는 게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용을 수정하거나 출처를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 강명규쌤 이메일 : studyholic@studyholic.com